전봇대 취객

(눅8:26-39)

26.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27.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8.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29.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30.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31.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32. 마침 그 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34.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35.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6.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37.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38.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전봇대 취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혹시 취객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또 미국에서 웃자고 만든 필름들 중에서 취객의 모습이 담겨진 그런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취객들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어느 연예인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외국의 어느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술을 잔뜩 먹고 잔 터라 목도 마르고 소변도 보고 싶고 해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변을 보고 다시 침실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화장실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화장실문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문을 발로 차기도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결국 호텔종업원이 왔습니다.
술이 깨서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는 화장실문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호텔방 밖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복도 벽에다 대고 소변을 본 거예요.
이것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상황이지요.

그런데 진짜 기억에 남는 취객의 모습 중 하나는 영상으로 찍으면서 따라가는데, 아마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이었던가 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카메라가 쫓아가면서 기회를 잡아서 찍었겠지요?
외국 사람인데 어느 전봇대 밑으로 가더니 옷을 다 벗어서 비틀비틀 하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 벗은 옷을 다 갭니다.
다 개서 옆에 나란히 놓고 신발도 벗어서 가지런히 놓고 양말은 벗어서 신발 속에 한 짝씩 집어넣고는 팬티만 입고 그 전봇대 밑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게 전봇대 취객입니다, 제가 이름 붙인 거죠.

자, 이 전봇대 취객과 오늘 본문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공관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데, 세 복음서가 다 특징적입니다.
마태는 이 거라사의 무덤 속에서 거하고 있는 귀신들린 광인의 이야기에서 광인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 사이에서 한 귀신들린 자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는 누가가 뒷부분에서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러 쇠사슬을 끊고…'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앞에다 내세워서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군대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을 다 끊어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는 사람이 얼씬도 못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런 모습을 덜 비중 있게 뒷부분에 처리하면서,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라고 하는 아주 눈길을 끄는 주목할 만한 대목을 기록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
쉽게 말하면, 무덤을 집인 줄 알고 옷을 오래 벗었다는 얘기는 그 무덤을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집인 줄 알고 거한다, 전봇대 취객과 똑같은 상황이죠.
취해가지고 전봇대 밑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옷을 다 벗어서 개놓고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인 줄 알고 집 대신에 무덤들 사이에서 거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굳이 앞부분에 우리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의 의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성령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 이 사건을 소재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돼지 떼가 몰살된 상황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봅니다.
돼지 떼가 몰살된 상황을 놓고 많은 주석가들과 성경연구가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돼지 떼가 유대사회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받기는 했지만 여기는 지금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사회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남의 재산인 2000마리의 돼지,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막끼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런 예가 없어요, 천지의 주인이시지만 천지의 주인 되심을 인간사회 속에서 주장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막 마구잡이로 당신 뜻대로 써버리시거나 처분하신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돼지 2000마리보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

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온당한 해석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거면 그냥 귀신을 쫓아내면 되지요.
왜 남의 재산인 돼지 떼 속에 집어넣어서 그 재산을 다 없애버리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은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 주세요!' 무저갱이란 귀신들이 심판 받아서 영원히 거할 처소 아닙니까?
그리로 보내지 말고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귀와 타협하시는 분이십니까?
귀신들의 간구도 예수님은 어느 정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절대 마귀와 협상을 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협상을 합니까?
독도 문제를 놓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협상하듯이 협상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허락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군대귀신들을 쫓아내실 것을 결정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돼지 떼에게로 귀신들을 쫓아내실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허락이 아니라 당신의 뜻도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지, 타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결정사항이셨다고 하면 '이놈아,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지 말고 저기 물로 가서 죽어!'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께서 돼지 떼에게로 들여보내시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말한 것이 마침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왜 돼지 떼를 몰살시키신 겁니까?
의도적으로 몰살시키신 거예요.
귀신의 뜻에 따라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 속에서 돼지 떼 2천 마리를 죽이신 겁니다.
그러면 왜 돼지 2천 마리를 죽이셨을까요?
돼지 떼 2천 마리의 주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라사라는 지방은 갈릴리에서 약 40km 떨어진 지점의 지역이고 그 전체 지역을 아마 거라사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쪽 서울의 동북쪽에서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미아리 아닙니까? 그 미아리 공동묘지에서 귀신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서울에 들어오시자마자 귀신들린 사람을 만났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자,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만나서 그 군대귀신들을 다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서 돼지 떼를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신 것은 돼지 떼 주인들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이 돼지 떼 주인들이 돼지를 키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살았는데, 아마 돼지 떼를 키우는 사람을 따로 둔 걸로 봐서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돼지 떼를 몰살시켰을까요?
그 군대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돼지 떼를 죽이신 것을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돼지 떼의 주인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돼지 떼를 죽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돼지 떼를 죽인 것이 돼지 떼의 주인들을 구원하시는 길이었을까요?
여기서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돼지 떼라는 것은 그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안정된 기반이었습니다, 재정적 기반이었습니다.
재정적 기반이 든든해야 삶은 안정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은가 하면, 이생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가 안정되기를 원하고 재정적인 기반이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뭐냐 하면, 등불 얘기 하시고 혈연관계 얘기하시고, 그리고 풍랑 만난 배 위에서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등불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등불이 없는 세상에서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등불이 없는 세상, 다시 말해 흑암의 세상, 등불이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저세상에

속한 천국이 현실감으로 느껴지면서 현실감이 불타오르는 상태, 이게 바로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집안 안방까지 들어차 있는 그런 경우에 그 집 주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이 지금 안방까지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강렬하게 마음을 지배하겠습니까?
이 상황이 바로 현실감이 불타오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서 현실감으로 불타오르는 상태가 등불인데, 이렇게 천국이 현실감으로 불타오르지 않는 등불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이렇게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이 땅 위에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거하는 광인이 옷을 벗고 집 대신에 무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덤이 집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전봇대 취객처럼 전봇대 밑이 집인 줄 알고 옷을 벗고 편안하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집안에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그렇게 거기서 잠을 자는 모습, 이게 바로 지금 귀신들리지 않고 있는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정상적이라고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집은 천국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업무상 나와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인데, 업무상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길가 전봇대 밑에서 옷 벗고 집인 줄 알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지금 광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광인을 보면서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군대귀신들의 작전이에요.
이 군대귀신이라는 게 소대, 중대, 대대, 여단, 사단, 그 다음에 군단, 6천 명으로 이루어진 군단이에요.
이 귀신들이 군인이라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고, 그 숫자가 하도 많아서 대대도 아니고 중대 소대도 아닌 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군단이 왜 한 사람에게 다 몰려왔어요?
6천의 귀신이 왜 한 사람에게 몰려있는 겁니까?
귀신들려서 미친 짓을 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그리 큰 효과도 아니고 기쁠 일도 아닙니다.
정말 귀신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하면, 천국만이 안정된 기반이 될 수 있는 집인데, 그 집인 천국을 몰라라 하고 이 땅 위에서 안정된 삶을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자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태가 귀신에게는 효과만점의 지배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미친 짓을 하게끔 하는 것은 귀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50%고 전략입니다.
한 사람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거라사 지방에 있는 수만 명이 다 그 귀신들린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정상이다, 그래서 돼지 떼 잘 키워가지고 이 땅에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귀신이 원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풍랑 만난 이야기가 바로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얼 보여주는 겁니까?
제자들은 난리를 칩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것이에요, 풍랑이 끊임이 없어요.
독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잘된다 싶으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기 위해 덤핑제소를 합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모든 과일과 채소가 뭉그러지면서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올라갑니다.
뭐 편안할 날이 없어요.
풍랑이 일지 않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이 지상의 삶은 풍랑이 이는 바다 위일 수밖에 없는데, 안정된 기반을 자꾸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게 전봇대 취객이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이 광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거주민인 천군과 천사가 볼 때는 정상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재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인간관계를 든든히 해서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미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집 대신에 발가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천군천사, 하나님아버지, 주

님이 보기에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천국의 현실감이 불타오르는 등불의 마음이 없이 이 세상에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미친 사람의 모습이고, 마귀 귀신들이 원하는 것은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해서 마치 이 세상이 집인 것처럼 머물려고 하는 정상인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귀신이 원하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돈 많이 벌어서 안정되게 살려는 것이 미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해서 이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좀 멋진 삶을 살아보겠다는 생각, 이게 바로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군천사가 볼 때, 마음이 등불인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면 이 세상은 뭡니까?
업무장소에요, 업무, 이 세상은 집이 아닙니다, 직장이에요.
직장에서 나와서 술 먹고 길거리에 나와서 자는 전봇대 취객처럼, 왜 이 세상에서 안정된 기반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으면 안정되고 평강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천국을 현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현실감으로 타오르는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으라는 얘깁니다, 그건 현실이 아니니까.
1차 현실이 아니니까.
그 현실감에 이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기다리면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천국이 현실감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제1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고 거기서 평강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게 될 거고, 이 세상은 이제 업무처리 하는 곳이라 이겁니다.
그 불타오르는 천국 현실감의 등불 아래서 헤드라이트가 차 앞에 비치는 길을 따라 걸어가듯이 이 흑암의 세계 속에서 그 천국 불빛을 따라서 업무처리를 하는 곳이지, 이곳에서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옷 벗고 집 대신에 무덤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있는 이 미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 눈에, 천군천사의 눈에, 사도바울과 베드로의 눈에, 초대교인과 사도들의 눈에 보이기는 우리가 그렇게 무덤 사이에 거하는 광인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안정된 기반으로서의 홈 스위트 홈은 천국뿐입니다.
어디 이 세상에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광인의 모습을 할 것입니까?
안 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전봇대 취객의 모습으로 살면서도 나 스스로가 정상인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 취객의 상태가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에 천국이 현실감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